

자 165만2천691명 특별감면 조치 • 청와대, 2018년 대표적 국정 과제 10가지 선정 발표...▲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경제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케어 및 치매 국가책임제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 ▲에너지 전환정책 시행 ▲아동수당 · 기초연금 지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신북방정책 · 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 · 다원화 •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 · 안철상 대법관 인준안 국회 통과 • 결연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인상 • '실종 여아' 고준희(5) 양, 군산 야산서 숨진 채 발견...친부가 시신 야산에 버려

■ 12월 30일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 첫 발령...사업장 단축운영

■ 12월 31일

• 국민의당 전(全)당원투표 74.6% 통합 찬성...안철수 재신임
• 2017년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작년 대비 3.1% 증가...한국은행이 2018년 1월 25일에 발표한 '실질 GDP 속보치' • 2017년 연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8% 증가한 5천73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반도체 수출 첫 900억 달러 · 수입은 4천7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7% 증가 • 2017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 1천127명...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적어 • 안성 · 천안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시 추가 확진 •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화재로 3남매 사망...2018년 1월 2일 불 낸 20대 여마 구속

국제 일지

■ 1월 ■

■ 1월 1일

• 멕시코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 시위...최고 20% 인상 • 브라질서 새해 첫날 교통사고 폭동...최소 60명 사망 • 중국발 영국 런던행 1만2천km 화물열차 노선 개통...첫 화물열차, 1월 1일 출발해 18일 런던 도착

■ 1월 2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바그다드에서 푸아드 마숨 이라크 대통령과 정상회담 • 이라크 바그다드의 시아파 거주지역 사드르시티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37명 사망 · 60여 명 부상 • 중국 항공모함 라오닝함, 남중국해 무력 시위...함재기 전-15 남중국해 첫 비행

■ 1월 3일

• 아이티 새 대통령에 집권 여당 대선후보인 조브넬 모이즈(48) 당선 • 대선패배 불복 대통령에 반기 든 감비아 선관위원장 외국 도피...정보 당국, 대통령에 비판적인 라디오 방송국 3곳 폐쇄 • 세계문화유산 칠레 항구도시 발파라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150채 전소

■ 1월 4일

• 진흙탕서 숨진 '미안마판 쿠르디' 사진 공개...미안마판 잔혹행위 피하려다 난민선 침몰로 실종 · 로힝야 인종 청소의 비극 • 필리핀서 무장괴한들 교도소 습격...최수 158명 탈주 · 6명 사살 •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의 대형 환승역 '애들랜틱 터미널'에서 오전 8시 30분께 통근열차 탈선...100여 명 부상 • 말레이시아 파시르 구당 항구에서 화물선 간 충돌로 기름 300t 유출

■ 1월 5일

• 세계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개막

■ 1월 6일

• 일본 정부, 부산소녀상 항의 주한대사소환 ·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 부산영사관 부산시 행사 불참 등 4개항 조치 발표 • 인도, 핵탄두 탑재할 수 있는 아그니-4 지대지미사일 시험발사...사거리 4천km 이상 • 미국 플로리다 주 남동부의 포트로더데일 국제공항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8명 부상...용의자 현장서 체포

■ 1월 7일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제하 사평(社評)에서 "사드 배치 맨 한국화장품 사지 않는 등 강력한 보복 있을 것"이라고 경고

■ 1월 8일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사일, 美 · 동맹 위협하면 격추할 것"이라고 말해 • IS, 바그다드 시아파 지역인 자밀라의 청과물시장에서 자살폭탄 테러...10여 명 사망 · 50여 명 부상 •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이 돌던 트럭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돌진...여군 3명 등 군인 4명 포함 모두 15명 사망 • 아크바르 사헤미 라프산자니 이란 전 대통령, 심장마비로 별세...향년 83세

■ 1월 9일

• 파리 경찰, 2016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방송인 킴 카다시안 웨스트를 덮쳐 114억원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난 강도단 16명 체포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 · 레알마드리드), 국제축구연맹(FIFA) 2016 올해의 남자선수상 수상

■ 1월 10일

•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네 번째 임기 취임 • 국제축구연맹(FIFA), 2026년 월드컵부터 출전국을 현재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16개국 확대 결정 •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루 세 차례 폭탄 테러...최소 47명 사망 • 1990년대 통일 독일의 경제개혁을 주도한 로만 헤어초크 전 독일 대통령 별세...향년 82세

■ 1월 11일

• 미국,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려...개인 7명 · 기관 2곳 추가 제재 • 미국 국방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해상기반 고성능 레이더 'X-밴드레이더' 배치..."ICBM 시험발사 막바지" 김정은 신년사 이후 첫 美군사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해킹 통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사실 공식

인정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북핵 중대위협...중국의 ‘빈 약속’ 더는 수용 못해” • 중국, “사드배치 강행 원치 않아요...강행 시 한중관계 훼손” • 멕시코 페소화 환율, 달러당 22.20페소까지 하락해 사상 최저치 경신 • 폴크스바겐, 미국에서 연비조작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1천억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3건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

■ **1월 12일**
 • 에어버스 새 여객기 38년 만에 이란에 첫 인도

■ **1월 14일**
 • 브라질 교도소 2곳에서 폭동 발생...최소 29명 피살 • 미국 민간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 캘리포니아 주 밴던버그 공군 기지에서 ‘팰컨 9’ 로켓 성공적 발사...폭발 4개월 만

■ **1월 15일**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양국 존재를 인정하는 ‘2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제평화회의, 프랑스 파리서 개최...양 당사자는 불참 • 중국-베트남,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방안을 찾자는 내용의 공동성명 발표...베트남의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쩡 공산당 서기장 중국 방문(1월 12~15일) 계기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스위스 국빈방문...정상회담 이어 다보스포럼 참석 • 인도 갠지스 강에서 배 전복...최소 26명 사망

■ **1월 16일**
 • 홍콩발 이스탄불행 터키 화물기,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 인근 민가에 추락...아동 6명 포함 최소 35명 사망 • 멕시코 칸쿤 나이트클럽에서 무장괴한 총격...5명 사망 • 12명 부상 • 이네스 엔리케스(37 · 포르투갈), 사상 첫 여자 50km 경보 공인 세계기록 보유...4시간8분26초

■ **1월 17일**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다케시마는 원래 국제법 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해... 韓정부 “부당한 주장 개탄”,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 ‘대선패배 불복’ 감비아 대통령, 90일간 비상사태 선포...장관 4명 사퇴 후 세네갈로 도피 •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 ·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

■ **1월 18일**
 • 이라크군, 티그리스강을 기준으로 모술 동부 지역을 이슬람국가(IS)로부터 탈환했다고 밝혀 • 말리 북부 가오의 군 기지에서 차량 자폭 테러...최소 50명 사망 · 100여 명 부상 • 중국-영국 잇는 첫 화물열차 1만2천km 달려 런던 도착 • 이탈리아 중부 산간 몬테랄레에서 규모 5.7 정도의 지진 4차례 발생...2016년 강진 지역, 19일엔 눈사태 호텔 덮쳐 25명 사망

■ **1월 19일**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북한을 비롯해 이란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 시리아 등 10개국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위험국’으로 지정 • 아다마 바로우 감비아 대통령 당선인, 피신자 있는 세네갈 주재 자국 대사관에서 취임...대선서 패한 야후야 자메 감비아 대통령 퇴진 거부 • 이란 테헤란의 17층 의류상가 화재로 붕괴...소방관 30명 사망 · 200명 부상

■ **1월 20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공식취임...취임연설서 ‘미국 우선주의’ 전후질서 대변혁 예고

■ **1월 21일**
 • 인도 동부지역에서 고속열차 탈선 사고...41명 사망 · 100여 명 부상

■ **1월 23일**
 •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평화회담,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24일 러 · 이란 · 터키, 시리아 휴전 공동 감독기구 창설 합의 • 일본 자위대, 전시가 아닌 평시를 상정해 미군의 함정을 방어하는 훈련 첫 실시(~27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공식선언 • 프랑스 파리에서 자율주행 전기버스 첫 시험운행 • 미국 동남부와 서남부 지역에서 토네이도와 폭우로 19명 사망...토네이도, 지난 주말 조지아와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3개 주(州) 강타

■ **1월 24일**
 •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 모술 동부 지역이 수니파 무장반군 ‘이슬람국가(IS)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공식 선언 • 터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로부터 탈환한 시리아 북부 지역을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이양하지 않겠다고 밝혀 • 영국 대법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개시에 앞서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 내놔 • 브라질 상파울루 주 바우루 시 교도소에서 폭동 발생해 수감자 200여 명 탈옥 • 일본 방위성, 독자 방위통신위성 첫 발사성공...부대 간 정보공유 등에 활용 •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 수출 화물 쿠바로 출발...목탄 공여품 실린 컨테이너 두 개

■ **1월 25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불법이민자 유입 차단을 위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0선 돌파 •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대원들이 차량폭탄과 총격으로 호텔을 공격...최소 13명 사망 · 10여 명 부상

■ **1월 26일**
 • 영국 정부, 유럽연합(EU) 탈퇴통보 법안 의회에 상정

■ **1월 27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양국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테러위험국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1월 28일**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터키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양자 무역협정 실무그룹 운영과 교역확대에 합의 • 일본, 초중학교 사회와 신학습지도 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방침 정해 • 칠레 남부 7개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11명 사망, 이재민 2천여 명, 가옥 4천여 채 소실 • 세리나 윌리엄스,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를 꺾고 우승...메이저 최다 우승 신 기록 달성

■ 1월 29일

• 캐나다, 미국 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캐나다에 발이 묶인 이민자와 난민, 여행자들에게 임시 거주권을 제공하기로 결정 • 캐나다에서 무슬림 겨냥 테러...퀘벡 모스크에서 총기난사로 5명 사망 · 의의자는 현지 대학생 • 미얀마 양곤 공항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의 측근인 무슬림 출신 변호사 코 니(65),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

■ 1월 30일

• 제28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개막(~31일) • 미국 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에 공식 탈퇴 통보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2016년 10월 경찰에 피살된 한인사업가 부인 만나 사과 •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7년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프랑스 출신 치대생 이리스 미테네르 우승

■ 1월 31일

• 콜롬비아 최대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무장해제 시작...콜롬비아 정부와 반세기 넘게 계속된 내전을 끝내고자 평화협정 체결

■ 2월 ■

■ 2월 1일

• 루마니아에서 대규모 반(反)부패 시위...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래 최대 규모로 10만여 명 참가 •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카 지역에서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 반군의 공습이 이어져 정부군 6명 숨지고 48명 부상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명령 내려 • 중국 산시성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5억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생명체 화석 발견...모든 동물의 기원으로 추정

■ 2월 2일

• 대만 정부, 불법 영업을 한 우버에 2억3천100만 대만달러 벌금 부과...우버, 10일부터 대만에서 영업 중단 발표 • 페이스북, VR 지식재산권 소송 패소...미국 법원, 비디오 게임 개발사인 제니맥스에 5억 달러(약 5천768억 원) 배상 판결 • 태국서 멸종위기 천산갑 비늘 3억 적발...6천 마리 분량 • 중국 저장성 원저우 원청현에서 5층짜리 연립주택 붕괴...9명 매몰

■ 2월 3일

• 유럽연합(EU) 28개국 정상회의, 몰타에서 개최...리비아 난민문제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미래 등 논의 •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 • 이란 외무부, 이란에서 열리는 국제레슬링대회에 출전하기로 예정됐던 미국 대표팀의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첫 보복 조치

■ 2월 4일

• 미 · 일 공동개발 차세대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발사 실험 성공 • 이란,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미국, 이란 미사일 도발 개인 13명 · 12개 단체 제재 • 세계 최초 핵 항공모함인 미 해군의 엔터프라이즈함, 55년 만에 퇴역

■ 2월 5일

• 루마니아 정부, 성명을 내고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부패사범 사면' 행정조치 폐지 결정 발표 • 칠레, 산불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해제...2016년 7월 이후 모두 3천112건의 산불 발생, 서울 면적(605km²) 10배에 달하는 5천885km²의 숲과 농지 등 소실

■ 2월 6일

• 일본 정부, 19일부터 삿포로에서 시작될 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신청을 한 북한 대표 선수 등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 세계 최장수 재위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90) 영국 여왕, 재임 65주년 '사파이어 주빌리' 맞아 • 일본 도요타자동차, 환경 및 안전 관련 기술 등의 분야에서 스키 자동차와 업무제휴를 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체결

■ 2월 7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 최종 비준 • 중국 1월 외환보유액 약 6년 만에 3조 달러 붕괴...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조9천 982억 달러 기록

■ 2월 8일

•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 밝혀 • 미 해병대, 일본 오키나와 현 부근에서 'F-35' 스텔스전투기 비행훈련 실시

■ 2월 9일

• 뉴욕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기대에 사상 최고치 기록...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20,172.40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307.87 · 나스닥 지수는 5,715.18에 장 마감 • 이스라엘 텔아비브 외곽 페타티크바의 한 노천시장 거리에서 총기 난사...최소 7명 부상 • 프랑스 플라망빌 원자력발전소 기계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방사능 누출은 없어 • 세계 최대 칠레 에스콘디다 구리광산 파업...노사 임금협상 결렬

■ 2월 10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존중 의사 밝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미일 안보공조 · 양자무역 논의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선 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 (very very high priority)고 강조 • 홍콩 지하철 객차에서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화재 발생해 최소 18명 부상...경찰 "60세 남성 개인적 문제로 화염병 투척...테러와는 무관"

■ 2월 12일

•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이탈리아와 프랑스 정부도 규탄 성명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예정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 • 독

일 새 대통령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61) 전 외교장관 선출...18년 만에 사민당 출신 •멕시코에서 대규모 '反트럼프 국민시위'...미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멕시코 접경지역에서 국경 장벽 건설 • 멕시코산 제품에 '세금폭탄' 부과 등 정책 강력 규탄

■ 2월 13일

• 유엔 안보리,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에 대해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미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영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만나는 주요국가 정상 • 중국,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북한산 석탄 1만6천 '퇴짜'...한화 11억원어치 전량 반송조치 • 파키스탄 탈레반, 시위대 겨냥 자폭테러...16명 사망 · 70여 명 부상

■ 2월 14일

• 영국 외무부,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항의 • 중국 후난성 렐위안시 소재 탄광에서 폭발 사고...9명 사망 · 2명 실종

■ 2월 15일

•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평화회담 2차 회담 열려...러시아 · 이란 · 터키 등 '중재국' 대표와 내전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 및 반군 단체 대표 등 참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 2월 16일

•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 김정남의 시신을 절차에 따라 북한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혀 • 파키스탄 '수피' 성지에서 이슬람국가(IS)의 자폭테러...최소 72명 사망 · 250명 부상 • 이라크 바그다드의 종교차 판매시장에서 차량폭탄 테러...100여 명 사상

■ 2월 17일

•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 김정남 살해 혐의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에 대해 북한 공작원이 아니며 사기나 조작에 휘말린 피해자일 뿐이라는 견해 밝혀

■ 2월 18일

• 말레이시아 현지 영자지인 뉴스트레이츠타임스, 1면에 북한의 공격을 받은 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내 치료시설로 옮겨진 김정남의 사진 게재

■ 2월 19일

• 이라크군, IS의 최대근거지인 모술 탈환작전 개시 • 제8회 샷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개막(~26일) • 중국,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있는 투우경기장 인근에서 사제폭탄이 터져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최소 31명 부상

■ 2월 20일

• 말레이시아, 평양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 • 말레이 주재 북한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김정남 암살 둘러싸고 양국 외교갈등 심화

■ 2월 21일

• 말레이시아 보건당국, 김정남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장마비 증거 · 침 흔적 없

어...유족 기다린다"고 말해 • 리비아 서부 지중해 해안서 난민 시신 74구 발견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새너제이 지역에 100년 이래 대홍수...1만4천 명 대피

■ 2월 22일

• 말레이시아 경찰, 경찰청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 브리핑 "맨손에 독 묻혀 공격 · 북한 대사관 2등서기관 현광성 · 고려항공 김육일 포함 北용의자 총 8명 · 김한솔 입국설은 루머 · 베트남과 인니 여성은 독성 알고 훈련받아"

■ 2월 23일

• 말레이시아 경찰,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김정남의 얼굴 피부와 눈 점막 등에서 화학무기용 무색무취 신경작용제인 'VX'가 검출됐다고 밝혀 •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해야 한다는 유엔의 보고서 공식 발표 •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 주 주도 라호르의 신축 중인 건물에서 폭탄테러 발생...최소 9명 사망 · 30여 명 부상 • 구글, 악플 색출하는 인공지능기술 내놔...뉴욕타임스서 테스트

■ 2월 24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북한을 7년 연속 자금세탁 · 테러자금 위험국으로 지정 •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 부총리,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 밝혀 "여건 범죄 은신처 아냐"

■ 2월 25일

• 말레이시아 보건당국,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신경작용제 VX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 확인...사건 발생 13일 만에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독 작업 • 말레이시아 경찰, 북한 용의자들의 임대 콘도에서 김정남 살해 독극물 제조용 추정 주사기 발견

■ 2월 26일

• 미국, 북한 위협 증가로 美 3함대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

■ 2월 27일

• 유럽연합(EU), '유엔 결의 2321호' 이행 위한 대북 추가 제재 이행안 발표...석탄 · 철 등 광물 수입 금지 •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 이하 MWC) 2017', 스페인 바르셀로나서 개막

■ 2월 28일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문했다고 밝혀..."왕이 외교부장 만날 것"

■ 3월 ■

■ 3월 1일

• 말레이시아 경찰, '김정남 암살' 여성 용의자 2명 살인혐의로 기소 •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 기대에 21,000선 돌파...사상 최고치 기록

■ 3월 2일

• 말레이시아, '김정남 암살' 갈등으로 8년간 유지해 온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 파기 결정...6일부터 발효

■ 3월 3일

• 말레이시아, 김정남 살해 혐의로 체포된 북한 국적 리정철 석방 후 북한으로 추방..."증거 없어 기소 포기"..."北대사관 은신' 고려항공 김육일에 체포 영장 발부

■ 3월 4일

• 말레이시아, '김정남 암살 갈등' 자국 주재 강철 북한 대사 추방 결정...6일 북한 외무성, 보복 조치로 주북한 말레이 대사 추방 결정

■ 3월 5일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개막...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별, 직능별 대표 2천800여 명 참석 •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수리가오 인근서 규모 5.9의 지진 발생...1명 사망 · 41명 부상

■ 3월 6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 서명...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허용 • 주일 미 공군, 최신예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와 '참수작전' 임무 수행 특수요원 은밀침투용 CV-22기 배치...한반도 유사시 병력·물자 수송 투입 역량 크게 개선 • 말레이시아, 안보 위협을 이유로 평양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최종예선에 자국 축구팀 출전 금지 결정 • '김정남 암살 갈등'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 추방...북한 외무성, 보복 조치로 주북한 말레이 대사 추방 결정

■ 3월 7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 채택 • 북한, 자국 내 말레이시아 국민들 출국 임시금지...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대응 조치로 말레이 내 모든 북한인 출국금지 지시 • 미국 정부, 북한-이란에 통신장비를 불법 수출한 중국 ZTE에 11억9천200만 달러(약 1조3천702억원)의 벌금 부과 • 북한의 일부 은행들 최근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자금줄 차단

■ 3월 8일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군병원에서 테러... 30여 명 사망 · 50여 명 부상 • 과테말라 산 호세 피놀라의 아동보호소에서 화재...31명 사망

■ 3월 9일

• 독일 뉘른도르프역에서 도끼 공격...5명 부상 · 용의자 1명 체포

■ 3월 11일

•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외곽 쓰레기매립지에서 쓰레기 더미가 붕괴돼 인근 주택 덮쳐...최소 35명 사망하고 수십명 실종

■ 3월 13일

•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북한의 인권탄압 규탄...책임규명 · 처벌 촉구 • 말레이시아 경찰,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된 북한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 • 이집트경찰, 무바라크 전 대통령 6년 만에 석방 결정 • 인텔, 자율주행차 카메라 제조업체 모빌아이 153억 달러(약 17조5천567억원)에 인수

■ 3월 14일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미군이 최신형 무인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을 전북 군산의 미 공군기지에 배

치한 것과 관련해 "불 위에 기름 붓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 비판 • 말레이시아 정부, 김정남의 시신을 비밀리에 방부 처리...항공기로 시신 해외 운송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 3월 15일

• 중국,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 제출 • 이라크 정부군, 이슬람국가(IS)로부터 모술 서부 지역 탈환 • 말레이시아, "김정남의 아들로부터 얻은 DNA 샘플을 근거로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혀 • 말레이시아, 비자 기한 초과 불법체류 북한 근로자 50명 추방 결정 • 미국 연방기금관리(기준관리) 3개월 만에 0.25% 포인트 인상...현재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 •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법원 청사에서 자폭테러...32명 사망 · 100명 부상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 도착...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 집중 논의 • 중국 2017년 전인대 폐막...시진핑 1인 체제 확인 • 금주 초 사흘간 미국 중서부·동북부 9개주 일부 지역에서 겨울 폭풍 '스텔라' 영향으로 인한 폭설로 15명 이상 사망하고 항공기 수천 대 결항

■ 3월 16일

• 일본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 중국 기업들, 필리핀으로부터 17억 달러(1조9천271억 원) 규모의 과일 등 농산물 수입 계약 체결 • 말레이시아 경찰, 김정남의 유가족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시신 처리를 일임했다고 밝혀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자 4명을 '적색수배'(Red Notice) 리스트에 올려 • 북한과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해킹그룹 '래저러스'(Lazarus), 31개국 100여 기업을 대상으로 파상적 해킹 공격 • 프랑스 파리의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소에서 폭발물이 담긴 우편물이 터져 IMF 직원 1명 부상 • 미국 메릴랜드 연방법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하는 판결 내려 • 페루 리마에서 집중호우로 최소 12명 사망...향후 2주간 계속될 듯

■ 3월 17일

• 일본, 새 '탐정위성' 레이더5호기 발사 성공...북한 미사일 동향 감시 •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에 "그들은(북한)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playing).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 • 조셉 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북핵 공조방안 논의차 중국 베이징 방문...20일 한국 방문

■ 3월 18일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사드 및 북핵문제 논의...“북핵 위협 다시 강조했다”며 “북한이 더 좋은 선택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혀 • 말레이시아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NST),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북한 국적자들이 이미 신원이 밝혀진 8명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 제기...“응급실까지 미행, 동태도 살피”

■ 3월 19일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19~22일 독일 · 프랑스 · 벨기에 ·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순방에 나서...“북핵 공조방안 · 자유무역 논의”

■ 3월 20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하이데르 알아비디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약속 • 중국, 사거리 1만3천km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풍(東風·DF)-31A’의 훈련 모습 공개 • 남수단 수도 주바 북서쪽 와우 공항에서 승객 등 49명을 태운 남수단 항공사 ‘사우스 슈프림 에어라인즈’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다 충돌...최소 14명 부상

■ 3월 21일

•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대통령궁 근처 보안군 검문소를 겨냥한 자살 차량폭탄 공격...최소 7명 사망

■ 3월 22일

• ‘반(反) IS 국제연대회의’ 워싱턴DC서 개막...IS 격퇴전을 지원하는 65개국 외교장(차)관과 3개 국제기구 대표급 인사들이 참석 • 불가리아, 유엔 대북제재 보고서 제출...“北대사관 직원 감축” • 영국 런던 의사당 부근에서 차량 · 흉기 테러로 5명 사망 · 최소 40명 부상...수사 책임자 “이슬람극단주의 테러로 짐작” • 이라크 정부군과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교전을 치르고 있는 모술에서 대규모 폭발 발생...민간인 100여 명 사망 •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흥(中興)통신), 미국 법원에서 북한 · 이란 제재 위반 유죄 인정...11억9천200만 달러(약 1조3천400억 원) 벌금 • 미국 야구대표팀, LA에서 열린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전에서 푸에르토리코를 8 대 0으로 제압하며 사상 첫 우승

■ 3월 23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월 22일 북한의 강원도 원산 일대 미사일 발사와 19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올해 세 번째 언론성명 발표 • 미국 검찰,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해킹해 8천100만 달러(약 908억원)를 털어간 절도의 배후로 북한 지목 • 우크라이나 동부 하리코프 주 도시 발라클레야에 있는 탄약고 폭발...주민 2만 명 긴급대피 • 멕시코 북부 치와와 시에서 아이 등교시키던 여성 언론인 미로스라바 브레아치(54) 피살... 마약밀매 조직과 부패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 써

■ 3월 24일

• 유엔 인권이사회, 2년 연속 표결 없이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인 2003년 이후 15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 미국 국무부, ‘이란 · 북한 · 시리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개인과 기업 등 총 30개에 대해 추가 제재 단행

■ 3월 25일

• 영국 중서부 머지사이드 주(州) 워렐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 발생...33명 부상

■ 3월 26일

• 말레이시아 경찰, 북한 대사관 첫 진입...현광성 등 3명 2시간30분 조사 • 말레이시아 언론 “김정남 시신, 영안실서 반출”...화장 가능성 • 홍콩 행정장관에 친(親)중국파인 캐리 램(林鄭月娥·59·여) 전 홍콩 정무사장(총리격) 당선...첫 여성 수반 탄생 •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의 카메오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1명 사망 · 15명 부상

■ 3월 27일

• 유엔 핵무기금지협약 협상, 미국 뉴욕에서 개시...핵보유국 등 제외 123개국 참여 • 말레이시아 정부, 북한 내 억류 자국민 9명이 전원 귀환하는 조건으로 김정남의 시신을 북측에 넘기로 합의...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에 은신해 있는 김정남 암살 용의자 3명의 출국도 함께 보장 •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불법체류자 보호도시’(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방침 공식 발표 • 일본, 올해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1천251억 엔(약 51조7천645억원)으로 확정

■ 3월 28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양자 관계 및 국제 현안 등에서 협력 강화 합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바마 친환경 규제’ 철폐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조치를 담은 청정전력계획 폐지하고 국유지 내 석탄 채굴 허용

■ 3월 29일

• 아랍연맹(AL) 정상회의, 요르단 사해 지역에서 진행...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 해법’ 지지 확인 •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 공식 시작...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탈퇴 통보문 전달 • 도시바 이사회, 미국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 파산보호신청 승인

■ 3월 30일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흐메트 위쥬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 공동명의로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북한 리용호 외무상 앞으로 발송 • 북한 · 말레이시아, 김정남 시신 ‘북한에 있는 가족’에 송환 합의...31일 ‘북한 억류’ 말레이시아인 9명 고국 도착 • 중국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절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경고

■ 3월 31일

• 미국 재무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더기 대북제재 단행...북한 석탄기업 ‘백설무역’과 제3국 근무 11명을 제재대상에 추가 • 김정남 시신 · 북한 용의자인 현광성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옥일, 베이징 도착 •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북한의 자국민 억류로 인한 인질사태가 종결된 만큼 말레이시아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 파키스탄 북서부 한 시장에서 탈레반 폭탄테러로 24명 사망 · 90여 명 부상 • 콜롬비아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 발생

■ 4월 ■

■ 4월 2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해...북핵에 최후 통첩성 경고 • 파키스탄 펀자브 주(州) 수피교 사원에서 관리인과 그의 추종 세력이

신도들을 공격해 최소 20명 사망·4명 부상…현지 경찰 “용의자 정신질환이거나 세력다툼”

■ 4월 3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8년 만에 이집트 정상과 만나 • 미국 하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에서 자폭 테러로 11명 사망·40여 명 부상…용의자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20대 남성

■ 4월 4일

• 중국·일본, 도쿄서 차관보급 협의…7월 정상회담 추진·대북공조 모색 • 미국, 해군 구축함과 항공전력으로 편성된 1개 수상전투전대(SAG)를 최근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 배치…중국·북한 견제 • 중국군, 한·일·대만 상륙가능해병대창설…북해·동해할대산하 • 시리아 북부 이дли브 주(州)의 칸세이칸 지역 주택가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리아군 또는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주민 58명 사망…프랑스,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 • 에콰도르 대선에서 좌파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레닌 모레노(64) 후보 당선…1998년 1월 강도가 쓴 총탄에 허리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에콰도르 첫 장애인 대통령

■ 4월 5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시리아 화학무기 민간인 살상 의혹’ 관련 긴급회의 열고 강력 규탄…“화학무기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 시리아 정부는 강력 부인 • 미국, 시리아 공군 비행장에 첫 미사일 폭격…화학무기 공격 응징 • 토마호크 미사일 60~70발 공격 •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북한 돈세탁 위험’ 주의보 발령

■ 4월 6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추가 중대조치 취할 것” 경고 • 유럽연합(EU),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 발표…투자 금지·서비스 제공 금지 확대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핀란드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 강조

■ 4월 7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북핵 심각한 단계…억제 위해 협력 강화” 합의 • 트럼프 “中 안 나서면 北문제 美 독자해결” • 일본, 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북핵·미사일 압박 강화 •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트럭 돌진 사고가 일어나 최소 3명 사망…테러 용의자 우즈베크 남성은 영주권 거부당한 추방대상자

■ 4월 9일

• 이집트 북부 콤투교회들에서 잇달아 발생한 폭탄테러로 최소 47명 사망…이집트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포

■ 4월 11일

• G7 외교장관 회의, 이탈리아 루카에서 개최…러시아에 시리아 정부 지원 중단 촉구 • “北, 핵 포기하고 추가도발 자제하라” •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무상 대학 교육 등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 독일 도르트문트 축

구팀 버스 주변서 3차례 폭발…선수 1명 부상·21일 ‘주식 사기극’으로 판명 • 렉스 틸러스 미국 국무장관,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 • 호주 연구팀, 체장암 생존기간 50% 늘릴 획기적 치료법 개발

■ 4월 12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규탄 결의안 부결…러시아, 거부권 행사 • 미국 주도 연합군, 시리아 동부에 있는 IS 소유의 화학무기 창고 공습…수백 명 사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울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대회에서 최초로 통상 100골 달성

■ 4월 13일

• 미군, 非핵폭탄 중 최대화력 ‘GBU-43’ 첫 사용…아프가니스탄 IS 근거지 폭격 • 중국 관영 환구시보, ‘북한 핵포기·개방, 중국의 도움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사평(社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도움이 있다면 핵을 포기하고서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

■ 4월 16일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불 위에 기름 붓는 행위 삼가라” 경고

■ 4월 17일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북한에 모험적 행동 말라고 경고 • 미국에 “일방적 대북행동 자제” 촉구 • 중국국제항공, 베이징-평양 노선 중단…대북압박 시사

■ 4월 18일

• 말레이시아 이민당국, 불법체류해 온 북한인 296명이 자수해 송환한다고 밝혀 • 이집트 룩소스서 3천500년 전 미라·유물 등 1천50점 무더기 발견

■ 4월 19일

• 인도 북부 산악서 버스 500m 아래로 추락…최소 45명 사망 • 콜롬비아 서부 마니살레스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최소 14명 사망·9명 실종

■ 4월 20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올해 다섯 번째 •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찰과 총을 든 테러 용의자 간 총격전…경찰관 1명과 용의자 사망 • IS “우리 소행”

■ 4월 21일

• 주요 20개국(G20),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논의 • 일본 의원 90명 무더기로 야스쿠니 참배…아베 총리는 공물 봉납 • 이스라엘군, 한 달 만에 또 시리아 남부 공격…시리아군 “이스라엘이 반군 지원”

■ 4월 23일

•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과 일본 호위함,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 시작 •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개시

■ 4월 24일

• 중국, 북한 6차 핵실험 우려에 “정세 긴장시킬 행동 말라” 강력 경고 • 중국, 인민해방군 조직개편 완성…84개 군급 부대

로 재편성 •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신당 '앙 마르슈(전진)'의 에 마누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 마린 르펜 후보가 결선투표 진출 • 핀란드에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 기본소득제 실험에 나서...연 1천400만원 • 여성 최고령 우주인인 미국의 페기 윌슨(57), 미국의 우주 최장 체류 기록(534일) 경신...우주에 머문 누적 기간이 535일

■ 4월 25일
 • 중국군, 1급 전비태세...북중 접경 20만 병력 명령 대기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 고도로 긴장...각국 냉정·자제 유지해야"

■ 4월 26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pressure)'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기조 발표...'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점 강조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30분이면 평양 도달 •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최소 29명으로 늘어나 군을 시위해산에 본격 투입 • 터키, 전국에서 재미 이슬람학자 귤렌의 추종세력인 '팻홀라흐 귤렌 테러조직'(FETO) 가담자로 의심되는 1천120명 구금하고 경찰 9천 명 직위해제...술탄개헌 '속청 광풍' •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고대유적 도시 하트라를 IS로부터 탈환 • 중국, 첫 자국산 항공모함 진수 성공...함명은 '산둥호' 유력 • 함재기 40대 탑재 가능 • 미국,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계개혁안 발표...'트럼프 셉트 감세' 논란

■ 4월 27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북한 도발 억제 위해 공조 합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 비용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추산...한미 FTA 종료도 언급

■ 4월 28일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런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메이 "대북 압박 계속하겠다" •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북한 인권 실태 다룬 국제 세미나 첫 개최

■ 4월 29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무시한 처사다"고 말해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해

■ 4월 30일
 •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발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런 북한의 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긴장 고조를 유발했다"고 지적 •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 비용 부담 논란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 밝혀

■ 5월 1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 적절하면 김정은 만날 용의 있다"고 말해 • 미국 민간 우주사업체 스페이스X,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정찰용(스파이) 위성 'NROL-76' 발사

■ 5월 2일
 • 중국, 전쟁 발발 시 자동 군사 개입 내용이 포함된 북·중 상호 원조 조약이 지역 평화 유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한반도 긴장 유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5월 3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미 의회에 접수...50만 명 서명 • 이란서 탄광 폭발 "최소 21명 사망·1km 강도에 수십 명 매몰"

■ 5월 4일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한반도 위기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 중국 외교부,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비난을 하자 객관적이며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관련 문제를 처리했다고 밝혀

■ 5월 5일
 • 미국 하원, '자금줄 완벽차단' 초강력 대북제재법 의결 "외화 유입 경로 포괄적 제재" • '핵위기 그룹'(Nuclear Crisis Group),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식 출범... '핵위기 막자' 세계 핵전문가 자문그룹 • 중국 황사 대란...중국 대륙 6분의 1 덮어

■ 5월 6일
 • 중·일, 2년 만에 '재무 대화' 개최... "금융 분야 협력 확인"

■ 5월 7일
 •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 탄생...중도신당의 에마누엘 마크롱(39·앙마르슈) 당선 • 미국의 극비 군사 무인 우주 왕복선 X-37B 2년 만에 지구 귀환

■ 5월 8일
 • 미국·북한·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5트랙 대화(북한 당국자와 미국 민간 전문가의 협의) 개최(~9일)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오슬로 접촉'에 "한반도 핵문제 직접당사국 北美대화 환영"... "상호 성의·신뢰 기반에 대화·협상으로 한반도평화 추진하길" •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 주(州) 산 이시드로 마을의 폭죽창고에서 폭발 사고 발생...최소 14명 사망·22명 부상

■ 5월 9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미국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중국 통해 전달-교도통신 보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전격 해임...트럼프 정권을 둘러싼 FBI의 러시아 내통 수사 도중 이뤄진 이번 해임을 놓고 민주당은 '워터게이트' 특별검사 해임과 비견하며 강력히 반발 • 중국, 사드 겨냥 한반도 부근 보하이(渤海·발해) 만에서 신행미사일 발사실험 • 독일 정부,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상업적 임대 행위를 곧 금지한다고 밝혀

■ 5월 10일

•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 조직 '코리아 임무 센터'(Korea Mission Center) 신설... 개별국가 전담 조직은 처음 • 아르헨티나 상원, 군부독재 반인권 범죄자의 형기 단축 금지 법안 만장일치로 가결 • 쿠르드 · 아랍 연합 '시리아민주군'(SDF), IS의 핵심 보급기지 타브카 탈환 • 일본 소프트뱅크, 순익 첫 1조 엔 돌파...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영업실적 순이익이 전년도 3배에 달하는 1조4천263억 엔

■ 5월 11일

•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31명 사상... 진앙지는 파미르고원 해발 4천300m 지역

■ 5월 12일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 CAT),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 개정 권고 •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약 100개국에서 사상 최대의 동시다발 랜섬웨어 공격... 러시아 내무부 컴퓨터 1천 대 감염 • 영국 병원 40곳 진료 차질 • 러시아 극동 캅차카 반도 화산 1만3천m까지 화산재 분출... "항공운항 적색경보" • 미 태평양 특전사령관에 한국계 대니얼 유 소장 취임

■ 5월 14일

• 유럽연합(EU),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평화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 • 중국 외교부, 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관계국 자체 요청"... 시진핑 "러시아와 정치적 해법 찾아" •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 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15일) • 에마뉘엘 마크롱(39), 프랑스 제6공화국의 8번째 대통령에 취임

■ 5월 15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관련국도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새 정부 총리로 에두아르 필리프(46) 르야브르 시장 지명 • 멕시코의 저명 언론인 하비에르 발데스(50) 피살... 마약밀매와 범죄조직 취재 전문 언론인

■ 5월 16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 •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 참가국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 촉구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실험의 전면중단이 이뤄진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 있다"고 말해

■ 5월 17일

• 미국 법무부,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하기로 전격 결정... 로버트 무엘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검으로 공식 임명 • 랜섬웨어 소행 주장 해커그룹 '샤도브로커스'(Shadow Brokers), "6월에 북한 핵 · 미사일 정보공개" 주장 • 제70회 칸국제영화제, 프랑스 휴양 도시 칸에서 개막

■ 5월 18일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국무부 청사에서 홍석현 대미 특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보인다면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한다"고 말해

■ 5월 19일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부서 컴퓨터 해킹... 유엔 조사 착수 • 비트코인, 금 역대 최고가 넘어... 비트코인 가격 1천922.4 달러 기록

■ 5월 20일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재선 성공... 57.1% 득표

■ 5월 21일

• 한국 · 미국 · 유럽연합(EU)을 포함한 30여 개국,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제2차 회기 두 번째 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규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아랍-미국 정상회담' 참석

■ 5월 22일

• 이라크,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의 '9개월 감산연장'에 합의 • 러시아 · 터키, 무역규제 전면 해제 합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방문... 아-팔 평화협상 재개 모색 • 영국 북부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미국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 중 폭발 사고 발생해 22명 사망 · 50여 명 부상... 리비아계 가정 출신 살람 아베디의 단독 자살폭탄 범행

■ 5월 23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규탄... 새 제재결의엔 '평행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베를린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정상회담... "평화협정에 뭐든 다할 것" •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4명, "트럼프, 북한과 협상하라"며 선제 타격론을 반대하는 공동성명 발표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 선포... IS를 추종하는 반군세력과의 전면전 선언 • 구글의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 중국 바둑의 자존심 커제 9단을 상대로 첫판 승리 •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첫 아프리카 출신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전 에티오피아 보건 · 외교 장관 선출 •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역으로 유명한 영국 배우 로저 무어 별세... 향년 89세

■ 5월 24일

• 무디스,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8년 만에 강등...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내려

■ 5월 25일

• 미국 하원의원, '북한여행금지법' 발의... 관광방문 전면 금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서 자살폭탄 테러... 경찰관 3명 사망 · 10명 부상 •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중국 커제 9단을 상대로 제2국 불계승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 잉글랜드),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

■ 5월 26일

• 러시아 · 중국 외교장관 모스크바서 회담... 양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드 한국 배치 반대" • 이집트 공군, 리비아 동부 도시인 데르나 인근 무장단체 훈련소를 6차례 공습... 콥트교도 버스 테러에 대한 보복

■ 5월 27일

• 주유 7개국(G7) 정상,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폐막한 정상 회의서 공동성명 발표…“北, 핵프로그램 포기 안 하면 대북제재 강화·북한, 납치 문제 포함해 인권 우려도 해소해야”·기후변화 합의는 실패

■ 5월 29일

•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 일본 규슈(九州) 주변 상공에서 공동훈련…“미사일 발사 北견제” • 러시아 외무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관련국들의 자제 촉구 •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대표적 상업지구 카라다에서 차량폭탄 테러…15명 사망·27명 부상 • 파나마 폭군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 뇌종양 수술 후 사망…향년 83세

■ 5월 30일

• 유엔인권이사회(UNHRC),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벌인 의혹을 받는 미얀마의 실태를 확인할 국제조사단 구성 •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비 첫 요격시험 실시…태평양 상공에서 가상 ICBM 격추 • 미국, IS 격퇴전에 참여하는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에 무기 배급 개시

■ 5월 31일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외교공관 밀집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폭테러 발생…90명 사망·400명 부상

■ 6월 ■

■ 6월 1일

• 미국, 추가 독자 대북제재 발표…개인 4명과 단체 10곳·러시아 관련단체와 개인 첫 포함 • 일본 해상자위대, 미 항공모함 켄빈슨·레이건함과 공동훈련 개시…F15 전투기 전술훈련도 실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파리기후협정 탈퇴 공식발표…“오늘부터 전면 이행중단”

■ 6월 2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차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제재리스트에 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 • 아시아안보회의, 싱가포르에서 개막…한인구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미국·중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가의 국방장관을 참석 •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안보 현안 논의 • 미국 중앙정보국(CIA), 이란 임무센터 창설…(대) 이란 강경책 ‘신호’ • 필리핀 국제공항 터미널 인근 ‘리조트 월드 마닐라’의 카지노에서 총격·방화 사건으로 한국인 1명을 포함해 37명 사망…범인은 빛더미 앉은 도박중독자로 현장에서 자결

■ 6월 3일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리 엘리제궁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기후변화 대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영국 런던 브리지와 인근 버러 마켓에서 차량·흉기 테러 발생…런던경찰 “시민 7명 사망…테러범 3명 사살” • 스페이스X 두 번째 재활용 로켓 발사…ISS 화물 첫 탑재

■ 6월 5일

•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등 중동 4개국, 카타르와 단교…“카타르, 테러리즘 지원” 주장 • 모테네그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9번째 회원국 가입

■ 6월 6일

•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한 괴한이 경찰관들에게 망치를 휘두르다가 경찰의 총에 맞고 제압돼…범인 “이것은 시리아를 위해서다”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져

■ 6월 7일

• 이란 테헤란서 ‘IS 자처’ 연쇄 총격·자폭테러…12명 사망·42명 부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인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크리스토퍼 레이 전(前) 법무부 차관보 임명 •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

■ 6월 8일

• 유럽연합(EU),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 제재…유엔 결의 반영 • 프랑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지역 정세 긴장 고조 행위 말라”고 촉구 •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 “최근 들어 점점 더 찾아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양자 관계와 북핵 문제 등을 포함한 국제 현안을 논의 •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가장 오래된 화석이 모로코에서 발견…약 30만 년 전 화석

■ 6월 9일

• 일본 시민사회 인사들, 올바른 위안부 역사를 일본 젊은이들에게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희망의 씨앗 기금’ 설립

■ 6월 12일

• 프랑스 총선 1차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도연합의 정당득표율이 32.32%로 1위 • 미국 메릴랜드주·워싱턴DC 정부, 헌법의 반부패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소송 제기 • 터키 서부 에게해에서 규모 6.2의 지진 발생…그리스 레스보스 섬 당국 “주민 10명 이상 다치고 주택 수십 채 파손”

■ 6월 13일

•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 북한의 해킹그룹 ‘히든 코브라’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보 발령 • 독일 뮌헨 인근 전철역서 총격으로 경찰 등 4명 부상…경찰 “개인적 이유로 범행한 듯”

■ 6월 14일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3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0.75~1.00%에서 1.00~1.25%로 인상 •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한 야구장에서 총기난사…야구 연습하던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피격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물류운송업체 UPS 창고에서 한 직원이 총기난사…범인 포함 3명 사망 • 영국 런던 시내 24층 아파트 ‘그렌펠 타워’ 화재…최소 58명 사망·70여 명 부상 • 과테말라 타후몰코 남서쪽 8km 지점에서 규모 6.9의 지진 발생

■ 6월 15일

• 미국 정부,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의 돈세탁을 대신해 준 중국 기업을 기소하고 법원에 관련 자금 190만 달러(한화 약 21억원) 압류 요청

■ 6월 16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체결한 국교정상화 협상을 취소하고 금융거래 및 개별여행제한 등의 일부 조치를 복원했다고 공식 선언 • 독일 통일총리 헬무트 콜 별세...향년 87세

■ 6월 17일

• 포르투갈 중부에서 대형 산불...최소 62명 사망 · 60여 명 부상

■ 6월 18일

• 프랑스 총선에서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 과반 압승 • 이란, 시리아로 29년 만에 첫 미사일 실전 발사...“IS 테러 보복”

■ 6월 19일

•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훈수상태로 석방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월버어(22), 귀국 셋새 만에 숨져 • 유럽연합(EU) · 영국,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위한 협상 공식 시작 • 영국 런던 모스크 근처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1명 사망 · 10명 부상...백인남성 용의자 현장서 체포 • “무슬림 다 죽이겠다” 보복 테러 • 러시아 캅차카 화산 1만5천m까지 화산재 분출...“항공운항 적색경보”

■ 6월 21일

• 일본,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명시 • 아사히신문, 북한 당국자가 6월 초 스웨덴에서 열렸던 안보 전문가들의 비공식회의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지향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

■ 6월 22일

•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개막...한국 영화 8편 · 북한 영화 3편 초청

■ 6월 25일

•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 주 바하왈푸르의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유조차 폭발...유출 기름 찰기던 주민 148명 사망 · 117명 이상 부상 • 콜롬비아 중북부의 유명 관광지 호수에서 유람선 침몰...최소 6명 사망 · 31명 실종

■ 6월 26일

• 캐나다-중국, 상호 해킹 금지 협약 체결...산업 비밀 보호 • 러시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볼라바’의 27번째 시험발사 성공

■ 6월 27일

• 유럽연합(EU), 불공정거래 혐의 구글에 24억2천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 부과 • 미국 국무부, 북한을 15년 연속 ‘인신매매 문제 국가’로 지정...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 • 라트비아 금융감독 당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규정을 어기고 북한 측과 거래한 혐의로 자국 은행 3곳에 총 60만 유로(7억7천만 원)의 벌금 부과

■ 6월 28일

• 유엔비확산회의, 북한의 핵 · 미사일을 규탄하는 성명 채택 • 중국석유그룹, 대북 제재 분위기와 수금 문제 등을 고려해 북한에 휘발유 등 연료용 기름 판매 잠정 중단 • 미국 하원, ‘북한의 기독교 박해’ 규탄 결의안 발의

■ 6월 29일

• 미국, 북한과 거래한 중국은행 · 기업 · 개인 등 4곳 제재 단행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 승인...13억 달러(약 1조4천865억 원) 규모의 무기판매 승인

7월

■ 7월 2일

• 미국 해군,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펼쳐...중국 압박 강화

■ 7월 4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관련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 • 중국, 북한 ICBM 발사성공 발표에 “유엔 결의 위반했다” 비난 • 중국 지린(吉林)성 북부 송위안(松原)시에서 가스 누출 폭발...5명 사망 · 89명 부상

■ 7월 6일

• 일본 자위대 · 미국 폭격기, 동중국해 상공 공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간 공동훈련 실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호 발사와 관련, “북한이 몹시 나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금지선은 설정 안 해” •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 주 아카풀코의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경쟁 마약조직원들 간의 패싸움으로 28명 사망 • 일본 규슈지역 폭우로 7명 사망 · 20여 명 실종 • 필리핀 중부 섬지역 레이테 주에 규모 6.5의 강진 발생...2명 사망 · 100여 명 부상

■ 7월 7일

• 몽골 최대 야당 ‘몽골민주당’ 소속인 격투기선수 출신 칼트마 바틀가(54), 몽골 대통령에 당선 • 중국 남부 후난(湖南)성 닝샹(寧鄉)현에 홍수가 발생해 44명이 숨지거나 실종

■ 7월 8일

• 주요 20개국(G20) 정상들,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째 회의를 마치고 폐막 성명 발표 “파리기후협정 지지, 미국의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 • 러시아,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탄도 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련 자료 유엔에 제출...“비행시간은 14분이었고 최대고도는 535km, 비행거리는 510km였다”고 주장

■ 7월 9일

• 이라크 정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최대 거점 도시인 모술 해방 공식 선언 • 만 14세 4개월의 아타야 티티쿨(태국), 여자프로골프 최연소 우승 기록 세워...유럽 여자프로골프 투어(LET) 타일랜드 챔피언십 우승

■ 7월 10일

• 미국 해병대 KC-130 수송기, 미시시피 주 르플로어카운티 이타베나 인근 대두밭에 추락...탑승자 16명 전원 사망 • 러시아 모스크바 북쪽 교외 지역의 리오 쇼핑몰에서 화재...14명 부상

■ 7월 11일

• 미국, 알래스카 주 코디악 기지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요격 시험 실시...14차례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 • 나이지리아서 여성 4명 자폭 테러...19명 사망 · 23명 부상

■ 7월 12일

• 미국 하원서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사법방해는 탄핵사유”

■ 7월 13일

• 미국 상원, '북한 거래 기업' 미 금융망 차단 법안 발의 • 멕시코 파티 가정집에 경찰복 입은 무장괴한 난입...11명 살해 •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 · 6), 간암 투병 중 사망

■ 7월 14일

• 중국 동북부 지린성, 13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18명 사망 · 18명 실종...주민 11만 명 긴급 대피

■ 7월 15일

• 미국, 대북(對北) 무역과 관련된 산동국제 · 단둥 하오유 · 르자오 철강 등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광물 · 섬유 10개사 정조준

■ 7월 16일

• 인도 카슈미르서 힌두 순례객 버스 추락...16명 사망 · 28명 부상 •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5위 · 스위스), 워블던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우승...통상 8번째 우승으로 역대 최다 기록

■ 7월 18일

• S&P 500 지수 · 나스닥지수, 넷플릭스 주가 급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2,460.61에, 나스닥 지수는 6,344.31에 장 마감 • 75년 전 실종됐던 스위스 부부 알프스 빙하에서 발견...실종 당시 모습 거의 그대로 남아

■ 7월 19일

• 미국,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기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던 이란 · 수단 · 시리아 등 3개국만 테러지원국으로 유지...북한 9년 연속 테러지원국에서 제외 • 청준홍(27 · 말레이시아), 헝가리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2017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에서 금메달...말레이시아 사상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

■ 7월 20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IS 및 알카에다와 연계된 개인 및 기업 등 총 8곳을 제재하는 결의안 채택 • 인도 대통령에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람 나트 코빈드(71) 후보 당선...사상 두 번째로 최하층 카스트인 '달리트' 출신 대통령 탄생 •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안보포럼에서 '김정은 축출' 강경 발언...“김정은, 北핵무기에서 떼어놓을 방법 찾아야...北주민도 원할 것” • 세계최대 불법거래 다크웹 '알파베이 · 한사마켓' 폐쇄 • 미국의 세계적인 록밴드 '린킨파크(LINKIN PARK)의 보컬 체스터 베닝턴(41),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 7월 21일

• 미국, 자국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결정...미국 대학생 오토 웬비어 사망 여파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유혈충돌과 보복살인으로 최소 7~8명 사망...안보리 24일 긴급회의 • 터키 남서부 해안서 규모 6.7의 강진 발생...작은 쓰나미가 발생하고 그리스령 섬에서 2명 사망

■ 7월 22일

• 미 해군의 11번째 핵 항모이자 사상 가장 큰 함정인 '제럴드 포드(CVN-78)'호 취역

■ 7월 23일

• 조던 스피스(23 · 미국), 영국 사우스프르트에서 막 내린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서 우승

■ 7월 24일

• 국제통화기금(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와 동일한 3.5% 제시...2018년 3.6%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차량 자폭테러로 26명 사망 · 58명 부상

■ 7월 25일

• 미국 하원, '북한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제재법안 처리...북한 · 러시아 · 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

■ 7월 27일

• 미국 상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러시아 · 이란과 패키지 제재 • 이란, 자체 개발 인공위성 발사체 '시모르그'(불사조와 비슷한 이란의 전설적 동물) 시험발사 성공...“북한 대포동 3호, 은하 3호와 유사 의혹”

■ 7월 28일

• 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이례적으로 거부...“그들은 말만 할 뿐” • 파키스탄 대법원, '해외자산 은닉' 나와즈 샤리프 총리 자격박탈 결정 • 일본 법원, 조선 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 위법 판결

■ 7월 29일

• 국제사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해 맹비난...중국 “유엔 결의 위반” · 러시아 “ICBM 아냐” • 세계 최장 흔들다리 스위스에서 개통...스위스 남부 체어마트와 그라헨을 잇는 마터호른 하이킹 코스의 그라벵구퍼 협곡 85m 허공서 494m 횡단

■ 7월 30일

• 일본자위대 전투기 · 미공군 폭격기, 한반도 인근 해상서 공동훈련 실시 • 중국, 건군 90주년을 맞아 아시아 최대 훈련기지인 네이멍구 주르허(朱日和) 훈련 기지에서 대규모 열병식 거행...시진핑 중국 주석, 군복 입고 사열 · 신형 ICBM 동평-31AG 공개 • 러시아 해군, '해군의 날'을 맞아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 군사퍼레이드...푸틴, 페테르부르크 퍼레이드 참가해 50여척 군함 사열 • 베네수엘라에서 개헌 권한 등을 지닌 제헌의회 선거 실시...야권 반발 속 사상자 속출 • 일본 첫 민간 우주관측 로켓 모모(MOMO), 발사 66초 만에 실패

■ 7월 31일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통상 3번째

■ 8월 ■

■ 8월 1일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북한 핵 ·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 북

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해 • 파키스탄 신임 총리에 사히드 카칸 압바시 전 파키스탄 석유자원부 장관 선출 •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도시 헤라트에 있는 시아파 모스크(이슬람 사원) 내부서 자살폭탄 공격…최소 30명 사망 · 60여 명 부상

■ 8월 2일

• 미국 공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 3’ 시험발사 성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 러시아 ·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 서명 •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 사상 처음으로 22,000선 돌파하며 마감

■ 8월 3일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면 개각 단행…각료 19명 가운데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5명만 유임 • 미국, 9월 1일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미국인, 그전에 북한 떠나야” • 유럽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금지된 살충제 성분 검출…독일 · 네덜란드에서 리콜 · 벨기에에서는 판매 금지 • 브라질 축구선수 네이마르(25),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PSG)과 5년 계약 체결…이적료 포함 총액 6천억원으로 가장 비싼 선수로 등극

■ 8월 4일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84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토치 타워’에서 새벽 대형화재 발생…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

■ 8월 5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 수산물 수출 전면금지 · 해외노동자 송출 동결 · 북한 수출액의 3분의 1 차단 효과 기대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에 심각한 우려 표명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취임식, 이란 의회 의사당에서 진행…정세균 국회의장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참석

■ 8월 7일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북한 리우호 외무상 참석 • 중국 해군, 서해 해역에서 사흘간의 대규모 실전 군사훈련 돌입…“북한 · 미국 동시 견제”

■ 8월 8일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을 통해 “2371호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북한에 미사일 발사 · 핵실험 등 중단 촉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태국 방문…“대북제재 동참 압박” • 워싱턴포스트(WP),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7월에 결론냈다고 보도 • 중국 중부 쓰촨(四川)성에서 규모 7.0의 강진 발생…최소 7명 사망 · 88명 부상 • 미국 컨트리 음악의 거장 글렌 캠펠 별세…향년 88세

■ 8월 9일

• 제임스 매트스 미국 국무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고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은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는 일을 멈추고 핵무기 추구를 그만두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 • 페이스 북, 동영상 플랫폼 ‘워치’ 공개…유튜브와 ‘맞짱’ •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2년 연속 우승

■ 8월 10일

• 유럽연합(EU), 유엔 결의 따라 북한인 9명, 단체 4곳 제재대상 추가…EU 대북제재 대상 62명 · 50개 단체로 늘어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 북한 광포격 위협에 요격 가능성 시사…“조립 위기 사태에 해당” • 중국 위안화 대폭 절상 고시…11개월 만에 6.6위안대 • 베네수엘라 반정부 해킹 공격…700만 명 휴대전화 ‘먹통’

■ 8월 11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군사 옵션’ 천명…“군사적 해결책 ‘장전’ 완료 · 북한, 현명하게 행동하고 다른 길 찾아야” • 중국 환구시보, ‘한반도의 극단적인 게임이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사평을 통해 “북한, 꿈에 미사일 도발하면 중국은 중립 지킬 것” 경고

■ 8월 12일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미국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해 비상사태 선포…시위대에 차량 돌진으로 1명 사망, 수십 명 부상

■ 8월 14일

•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8월 15일부터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혀…북한 수출 62% 감소 예상 • 미국 뉴욕타임스(NYT), “북한 ICBM 엔진 암시장서 조달…우크라이나 공장 배후 의심” 보도…우크라이나 업체는 “북한과 연계 없다” 부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 •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 인근 리젠트 지역에서 폭우에 이은 대규모 산사태 발생…약 400명 사망

■ 8월 15일

• 중국, 미국의 지식재산권 조사에 “좌시 않겠다” 경고…무역전쟁 위기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 납부…여야의원 집단 참배 • 나이지리아 북동부 마이두구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여성대원의 소행으로 보이는 자살 폭탄테러로 27명 사망하고 83명 부상 • 베네수엘라 남부 도시의 한 교도소에서 무장한 재소자와 군 병력 충돌…최소 37명 사망

■ 8월 16일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칠레 · 브라질 · 멕시코 · 페루 등 중남미 4개국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 · 통상 관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 •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이투리 주에서 대규모 산사태…사망자 · 실종 200여 명

- 8월 17일
 -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가인 람블라스 거리에서 밴 차량이 보행자를 향해 돌진...사망 13명·부상 100여 명·용의자 2명 체포, 운전자 추적 중
- 8월 18일
 - 일본, 시마네·히로시마·고치 등 9개 현에서 긴급 미사일 경보시스템 가동 훈련 실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발언한 '오른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전격 경질
- 8월 19일
 - 인도 북부에서 열차 탈선해 최소 23명이 숨지고 수십 명 부상
- 8월 20일
 - 미안마군 반군소탕에 로힝야족 난민 '엑소더스' 재개
- 8월 25일
 - 로힝야족 반군 미안마 경찰초소 습격...반군 59명·정부군 12명 총기명 사망
- 8월 29일
 - 유엔 안보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 • 일본, 북한 미사일 발사 후 12개 지역에 피난 정보...“북한에 엄중 항의”
- 8월 31일
 - 미국, 러시아의 미국 외교관 추방 조치에 맞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미국 내 러시아 외교시설 3곳 폐쇄

■ 9월 ■

- 9월 1일
 - 미국의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조치 정식 발효...미 국무부, 예외신청 절차 공시
- 9월 4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개최...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 논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북한에 가장 강력한 압박 가하기로 합의 •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대통령, 베른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치를 중재하겠다고 제안
- 9월 7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그날은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 • 역대최강 허리케인 ‘어마’, 카리브 해 일대 강타...플로리다 20만 명 대피 •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 피히히아판에서 남서쪽으로 87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규모 8.1의 강진 발생...멕시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으로 사망자 90여 명
- 9월 8일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교역 전면 중단 • 미안마 정부군의 ‘인종청소’ 의혹 속에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 25만 명 넘어

- 9월 10일
 - 미안마 로힝야족 반군,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임시 휴전 선언...정부군 입장발표 없어 실효성 의문 •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 미국 플로리다 주에 상륙...피해 속출
- 9월 11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만장일치로 채택...대북 전체 유류공급 30% 가량 차단(원유수출 연 400만 배럴서 동결·정유제품 수출 연 200만 배럴 상한 설정)·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북한 신규 해외노동자 사전 고용허가하고 기존 노동자 연장 금지·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추가 • 스페인 카탈루냐 주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인들의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100만 명 시위
- 9월 13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안마 ‘로힝야 인종청소’ 규탄성명...중·러 동참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개최지 2024년 파리·2028년 LA 만장일치 확정...IOC 사상 최초로 복수 올림픽 개최지 동시 발표 • 싱가포르 첫 여성대통령 탄생...할리마 야콥,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
- 9월 14일
 - 유럽연합(EU),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반영해 북한 제재 강화...북한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개인 9명·단체 4곳 추가 제재 • 스페인 카탈루냐 분리독립운동 출정식...1만 명 집결 • 이라크 남부서 총격·자폭 테러...최소 60명 사망·90명 부상
- 9월 15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 채택...추가제재 언급 없어 • 중국, 북한 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반대한다며 강력히 비판 • 영국 런던의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폭발·화재 테러로 30명 부상...용의자 2명 체포
- 9월 18일
 - 미국·일본 공군, 규슈 주변 상공에서 연합훈련 실시...미 공군의 B1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북한 겨냥 무력시위 •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1차 총회,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 개회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극히 유감스럽다” • 미국 방산·항공우주 업체인 노스럽 그루먼(Northrop Grumman), 미사일업체 오비탈(Orbital) ATK를 78억 달러(8조8천억원)에 인수...방산공룡 또 탄생
- 9월 19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로켓맨이 자살임무를 하고 있다”고 비난 • 미안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로힝야족 ‘인종청소’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입 열어...4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유발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국제사회의 도움 요청·인권단체 “거짓말”이라고

비난 •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규모 7.1의 지진 발생…최소 224명 사망

■ 9월 20일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10월부터 보유자산 축소 개시 발표…금리는 동결

■ 9월 22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통해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는 분명한 미치광이”라며 “그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란, 사거리 2천km 신형 탄도미사일 ‘코람샤흐르’ 1발 시험발사

■ 9월 23일

• 강진 4일 만에 멕시코 남부서 또 규모 6.1의 지진 발생…수만 명 대피

■ 9월 24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입국금지’ 대상에 북한 추가…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총선에서 승리하며 4연임에 성공…득표율 저조

■ 9월 25일

• 미국 하원, 북한인권법 시행을 5년 더 재연장하기 위한 법안 통과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중의원 해산 공식 표명…10월 22일 총선 • 이라크 쿠르드족, 분리·독립을 묻는 찬반투표 실시

■ 9월 26일

• 미국 재무부, 대북 제재 행정명령(13810호)의 첫 이행 조치로 북한은행 8곳과 은행 업무 관련자 26명 무더기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위한 사전단계 • 일본, 해저 1천600m에서 광석 연속 채취 세계 첫 성공 •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 사상 첫 허용…2018년 6월부터 시행 • 단문형 메시지 중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글자 수 기존 140자에서 280자로 늘리겠다고 밝혀…한국어·일본어·중국어는 포함 안 돼 • 우크라이나 중남부 비니차 주 칼리노프카 인근 탄약고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주민 3만 명 대피

■ 9월 28일

• 중국, 자국 내 북한 기업들에 120일 이내 폐쇄 통보…북한 식당에 직격탄 • 일본 중의원 해산…10월 22일 총선거

■ 9월 30일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중국 방문…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잇달아 회담

■ 10월 ■

■ 10월 1일

•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장에서 총격 사건 발생…58명 사망

■ 10월 2일

•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사(25)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호영(29)에 대한 첫 공판 열어…김정남 암살 女피고들 “우리도 피해자”라며 무죄 주장

■ 10월 3일

• 노벨물리학상, 중력과 존재를 실제로 확인한 과학자 3명 공동수상…라이너 바이스 매사추세츠공과대 명예교수·배리 배리시 캘리포니아공과대학(캘텍) 교수·킵 손 캘텍 명예교수

■ 10월 4일

• 노벨화학상, 고해상도 저온 전자 현미경 관찰법을 개발한 자크 뒤보세(75)·요아힘 프랑크(77)·리처드 헨더슨(72) 등 3명이 공동수상 • 중국 윈난성에서 소행성 낙하…공중서 540여 규모 폭발

■ 10월 5일

• 노벨문학상에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스웨덴 한림원 “세계와 달아 있다는 환상 및 심연 드러내”

■ 10월 6일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12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정’ 채택 • 노벨평화상에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 10월 9일

• 노벨경제학상에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

■ 10월 10일

• 카탈루냐 수반, 독립선언절차 중단 제안…“투표 통해 독립공화국 선포 권한 위임 받았지만 대화로 갈등 풀고 싶어” • 스페인 정부 “암묵적 독립선언 수용할 수 없다”

■ 10월 12일

• 미국,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결정…2011년 10월 재가입 후 6년 만에 탈퇴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북핵 협상을 거부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북핵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화와 협상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

■ 10월 13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대(對) 이란 전략 발표 회견에서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말해…“이란 핵협정은 역대 최악의 협정이자 가장 일반적인 거래”

■ 10월 15일

•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최악의 연쇄 폭탄 테러…“최소 231명 사망” • 사흘간 ‘국가 애도의 날’ 선포

■ 10월 16일

• 유럽연합(EU), 더 강화된 대북제재안 채택…모든 분야 대북 투자 금지, 정유제품·원유 수출도 전면 금지, 1인당 대북송금 한도 1만5천 유로→5천 유로로 대폭 축소, 북한 노동자 노동허가 갱신 불허, 북한군·인민무력부 제재 대상에 추가 • 메르세데스벤츠, 영국서 40만 대 리콜…에어백 작동장치 결함

■ 10월 17일

•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상징적 수도인 라카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 •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 탈레반의 자살 폭탄 공격과 총기 테러 발생…최소 78명 사망·160여 명 부상 •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 메르신에서 경찰 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로 12명 사상 • 2017 맨부커상에 미국 작가 조지 손더스 선정

- 10월 18일
 -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24일)…시진핑 주석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심과 사명을 잃지 말고 중국 특색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아래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
- 10월 20일
 -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제 핵 비확산회의 개막(~21일)…최섉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 이상화 북핵외교기획단장(국장급) 등 참석
- 10월 21일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군 간부 후보생 15명 순직
- 10월 22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대응과 관련,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돼 있는지 안다면 충격 받을 것”이라고 말해
- 10월 23일
 - 일본 총선에서 아베 총리 진영 압승
- 10월 24일
 -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인 천하’ 확인 • 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워머 북핵제재법’, 미 하원 본회의 통과…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남자 선수상 2년 연속 수상
- 10월 25일
 - 중국 공산당, 시진핑 2기 7인체제 출범…리잔수 등 상무위원 5명 새로 선임 • 집권 2기, “개방·경제발전·샤오강 실현”에 로드맵 제시 • 태국, 닷새간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라마 9세)의 장례식 거행 • ‘북한 탄도미사일 조사법안’ 미국 하원서 발의…미사일 해외 기술 습득 의혹 조사 요구
- 10월 26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 네덜란드 루터 3기 내각 출범…총선 225일 만에 ‘무정부’ 탈출 • 러시아, 대륙간탄도미사일 4발 시험발사
- 10월 27일
 - 카탈루냐 의회,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선포안 가결…스페인 상원,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안 가결
- 10월 30일
 - 이란, 자체 개발한 신형 레이더 ‘아파크’ 공개…200km 밖에 있는 해상 및 공중목표 감시추적 가능

■ 11월 ■

- 11월 1일
 - 유엔, 미국의 대(對) 쿠바 경제봉쇄 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 말레이시아 전 국민 피해 개인정보 유출 대란…현지 주요 이통사들 신상정보 4천620만 건 여과 없이 노출

- 11월 2일
 -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에 제롬 파월(64) 현 연준 이사 내정 • 휴스턴 애스트로스, 2017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4승3패로 꺾고 창단 55년 만에 우승
- 11월 3일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서 폐막한 총회서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관한 성명서 채택…국제기구 이례적 성명 채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11월 3~14일 한국·중국·일본·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 방문 • 미국·일본·인도,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 인근 해상에서 첫 해군 공동훈련 실시(~6일)…일본 언론 “동해서 한·미·일 이외 국가 공동훈련 참가는 처음”
- 11월 4일
 - 모하마드 빈살만 알사우드(32) 사우디아라비아 제1왕위계승자(왕세자) 겸 국방장관, 부패 척결을 앞세워 왕자 11명·현직 장관 4명·전직 장관 수십 명 체포…반대파 대거 숙청
- 11월 5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번째 아시아 순방국인 일본 도착 •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로 25명 사망·20명 부상…미 경찰 “총격은 단독범 소행” • 말레이시아 페낭 주에서 폭풍우 몰아쳐 최소 3명 숨지고 주민 2천 명 긴급대피
- 11월 6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 모토아카시카에 있는 영빈관에서 정상회담…핵·미사일 개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 • 말레이시아 경찰, 사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김정남 암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암살 관여 남성 용의자들이 모두 북한인이라고 밝혀…북한 배후설 결국 사실
- 11월 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 11월 9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의 정상회담…북핵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견제와 압박을 하기로 해
- 11월 12일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 인근 빈민가의 핑크 댄스파티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7명 사망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화물 열차가 탈선해 최소 34명이 숨지고 26명 부상
- 11월 13일
 - 유엔,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 제31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 •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규모 7.3의 강진 발생…200여 명 사망·2천 명 부상 • 이재민 수만 명
- 11월 14일
 - 유엔,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택...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 촉구 • 미국 캘리포니아 초등학교서 총기 난사...최소 5명 사망

■ 11월 15일

• 짐바브웨 군부, 실권 장악하면서 사실상 쿠데타...로버트 무가베(93) 대통령의 37년 독재 종말 • 500여 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 초상화 '살바토르 문디'(구세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천30만 달러(약 4천978억9천만원)에 낙찰...세계 최고가 미술품 등극

■ 11월 16일

• 유엔총회 제3위원회, 미얀마 당국에 로힝야족에 대한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 촉구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문제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혀

■ 11월 17일

• 세계보건기구회의, 결핵 완전 퇴치 호소 선언 발표 • 송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

■ 11월 18일

•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 퇴진 요구 대규모 시위 •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규모 6.9의 지진 발생...학교·사원 등 약 3천개의 건물이 파괴되고 1만2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 11월 19일

• 짐바브웨 여당, 당대표직에서 무가베 대통령을 해임하고 출당 의결...“20일 낮 12시까지 사임하라”고 최후통첩

■ 11월 20일

• 제13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막(~21일)...의장 성명 “북한 도발 규탄·긴장완화 중요”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 송타오, 나흘간 방북 후 베이징 도착...김정은과 회동 불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北 핵초토화로 전 세계 위협하고 외국서 암살 등 테러리즘 지원” • 비트코인 가격 8천 달러 첫 돌파

■ 11월 21일

• 미국, 중국 기업과 북한 운송회사·선박 등에 무더기 제재...개인 1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뒤늦게 의장 성명 발표...“(EAS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37년간 짐바브웨를 통치해 온 로버트 무가베(93) 대통령 전격 사임 발표...“탄핵 절차 중단”

■ 11월 22일

• 일본,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 • 대만에서 규모 5.2의 지진 발생

■ 11월 23일

• 일본 해안서 표류 추정 북한 남성 8명 발견...“고기잡다 배고장·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 11월 24일

• 이집트 시나이반도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폭탄·총기 테러 발생...S깃발 들고 출입구 막은 채 학살·305명 사망하고

128명 부상 • 유럽의 한 선글라스 회사 '경애하는 지도자 선글라스'(Dear Leader sunglasses) 선배, 1개 팔 때마다 10달러(약 1만원)를 북한 관련 단체 2곳에 기부

■ 11월 25일

• 일본 니가타 해안서 표류 북한인 추정 시신 발견 •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아궁 화산 나흘 만에 또 분화...항공편 결항에 여행객 발 묶여

■ 11월 26일

•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아궁 화산 분화 본격화...화산재 해발 2만6천 피트(약 7천900m) 높이까지 뿜어져

■ 11월 27일

• 일본 아키타 현 오가시 해변에 표류해 떠내려 온 북한 목선 1척 내부에서 8명 시신 발견 •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발리 아궁 화산 분화 본격화에 최고 '위험' 경보 발령하고 공항 일시 폐쇄...반경 10km까지 대피구역 확대

■ 11월 28일

• 중국, 베이징·산둥 지역에 한해 한국단체관광 허용...롯데호텔·쇼핑은 불허 • 북한 어선 2척 또 일본 서부 앞바다서 표류...21명 전원 구조돼

■ 11월 29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미사일 도발' 긴급회의 개최

■ 12월 ■

■ 12월 1일

•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간 고위급 대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북한 대표단 불참 •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참석 • 북한 미사일 위협 속 하와이 30년 만에 핵 공격 대피훈련 실시 • 일본 후쿠오카서 미사일 대피훈련...시민단체 “불안 부추긴다” 항의

■ 12월 3일

• 일본 니가타 해안서 북한 추정 표류 어선·시신 2구 또 발견

■ 12월 4일

• 일본 항공자위대, 일본 주변 공역에서 주일 미군 스텔스 전투기 F-35와 공동훈련 실시...북한 견제 • 운두라스 대선 개표 완료...에르난데스 현 대통령 승리 •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 후티 반군에 피살...반군 “살레, 도피 중 총탄 맞아”

■ 12월 5일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 주도의 도핑 조작 스캔들로 세계를 농락한 러시아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불허 징계 내려...개인자격 출전만 허용 • 유럽연합(EU), 한국 포함해 17개국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 선정...“한국, 외국투자 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 투명성 떨어져” • 일본 여야의원 60명, 2차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 집단참배 •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충돌...50여명 부상 • 일본 니가타(新潟) 현 인근 해안에서 표류 중인 북한 목선 2척과 시신 2구 또 발견

■ 12월 6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하고 미국대사관 이전 공식 천명...아랍·이슬람 반발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에 성희롱·추행·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선정·'프랑스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린 록가수 조니 알리데(영어 이름 조니 할리데이), 폐암 투병 끝에 74세의 일기로 별세...9일 장례식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과 시민 수만 명이 애도하는 가운데 사실상 '국장(國葬)'으로 치러져

- 12월 7일
 - 일본 아키타·니가타 해안서 북한 추정 어선·시신 또 발견
 - 비트코인 1만4천 달러 돌파...한국시장 비중 20% 넘어
- 12월 11일
 - 중국과 러시아군, 베이징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합동 미사일요격훈련 진행(~16일)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리아 파견 자국군 철수 지시...현지 공군기지 전격 방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화성 탐사를 목표로 달 유인탐사를 재개하는 행정지침에 서명
- 12월 12일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기와 관련해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가까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해 •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평창 동계올림픽에 자국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 허용 결정 • 국제변호사협회(BA),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한 보고서 발표
- 12월 13일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기준금리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올라
- 12월 14일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석유공급 제한을 축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해 • 윌트디즈니, 21세기폭스의 영화·TV 사업 등의 주식을 524억 달러(약 57조1천억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수 합의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 폐기...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 서비스를 차단할 권한을 갖게 돼 • 일본 아키타 현서 표류 추정 북한 목선 2척·시신 4구 발견
- 12월 15일
 - 일본, 19개 북한 단체를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강화
- 12월 16일
 - 필리핀 중부에 태풍 '카이탁' 강타...50여 명 사망·실종 • 칠레 남부 비야 산타 루시아 마을에 산사태로 가옥 20채 매몰...20명 사망·실종
- 12월 17일
 -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칠레 대통령,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대선 승리 확정 • 성탄 앞두고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 남서부 퀘타의 한 교회에서 자살폭탄 테러...최소 8명 사망·40여 명 부상
- 12월 1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안보전략 마

- 련...“압도적 힘으로 북한 침략에 대응하고 비핵화 강제요선 향상시킬 것” • “본토방어 위해 다중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 “한국과의 동맹·우정 역대 최고” •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하고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 강조 • 미국 정부, 올해 초 전 세계 병원·은행·기업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워너 크라이'(WannaCry)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 •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남부에서 암트랙 열차 탈선...최소 3명 사망·100여 명 부상
- 12월 19일
 - 유엔총회,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예멘반군, 사우디 국왕 궁궐로 탄도미사일 발사...사우디 “요격”
- 12월 20일
 - 온두라스 대선 개표부정 시위 격화...도로 마비·항공편 결항 •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세계개편안, 미국 의회 최종 통과...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
- 12월 21일
 - 유엔총회, 예루살렘 지위에 대한 어떤 결정도 거부하는 '예루살렘 결의안' 채택...압도적 찬성 • 호주 멜버른에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한국인 관광객 3명 등 19명 부상...운전자는 정신병력·마약복용 전력
- 12월 22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대북제재결의 2397호' 채택...석유제품 90% 차단 • 북한 노동자 송환 • 제27호 태풍 '덴빈', 필리핀 남부지역 강타...24일 200여 명 사망
- 12월 23일
 - 필리핀 남부지역에서 제27호 태풍 '덴빈'으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발생...200여 명 사망·70여 명 실종·5만여 명 대피
- 12월 24일
 - 필리핀 다바오 시의 NCCC 쇼핑몰에서 화재 발생...37명 사망
- 12월 25일
 - 유엔총회, 로힝아족 상대 군사행동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12월 26일
 - 미국 재무부, 북한 미사일 개발주역인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김정식 부부장 단독제재 • 일본 표류 북한 목선 승조원 8명, 중국을 경유해 북한 송환 • 태국, 8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북한과 물적·인적교류 사실상 중단
- 12월 27일
 - 우크라이나 정부-반군, 300여 명 포로 교환...무력 분쟁 기간 중 최대 규모 포로 교환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액자 모양 전망대 완공...자빌 공원에 가로 93m, 세로 150m 규모의 직사각형 모양
- 12월 28일
 - 스위스, 북한 인몰 16명·기관 1곳 제재 명단에 추가
- 12월 29일
 - 러시아 정부, 연해주 기업들의 “북한 노동자 9천 명 배정” 요청 거절 • 이집트 콥트교회서 총기 난사로 9명 사망...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배후 자처